

근대 계몽기 『호남학회월보』의 특성 연구*

정 훈(군산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호남학보』에 나타난 근대성 |
| 2. 호남학회의 성립과 학보의 발간 | 3.1. 근대교육과목의 소개와 학생들의 성향 |
| 2.1. 호남학회의 성립 과정 | 3.2. 사대부 교육에서 가정교육으로 |
| 2.2. 『호남학보』의 발간과 주요 인물 성향 | 3.3. 의무교육의 도입과 학교 설립 |
| | 4. 결론 |

국문초록

국권 상실이 임박해오던 시기, 3~4년 정도의 짧은 기간 존속하고 이내 사라져버린 월보들의 주요내용은 서구 근대의 분과 학문들을 축약 번역하여 전하는 것이었다. 단기적인 활동 속에서도 이 시기 학회들은 조선의 근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호남학회에서 발간한 『호남학보』 역시 이러한 근대계몽기 지식인들의 절박함이 묻어있다.

편집주관이었던 이기(李沂)는 구학과 신학은 문자만 다를 뿐 그 의리는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구학문과 신학문의 친연성을 주장하였지만, 실제 『호남학보』에서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근대지식과 관련된 신학문이었다. 『호남학보』의 ‘교육변론’, ‘각학요령’에는 국가학, 정치학, 법학처럼 정치와 관련된 학문에서부터 농학, 종식학, 삼림법 등 실용적인 학문과, ‘가정학’처럼 새로운 신식학문도 소개하고 있다. 호남학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가정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매 호마다 ‘가정학’란을 마련하여 태아교육,

자녀교육, 유아놀이, 소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호남학회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보통교육, 의무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기(李沂) 등은 구학문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등교육과정에 적용해야 하고, 초등교육에서는 서양식 학문체계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등교육과정을 설립하여 서로 뜻이 통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교제를 하고 지식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핵심어 : 호남학회, 호남학보, 근대교육, 가정교육, 의무교육

1. 서론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제에 의해 통감정치가 실시되자 조선은 독립국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이에 국권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민족의식을 반영한 단체나 학회가 많이 조직되었다.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다는 특수한 시기에 출현한 학회 및 단체들인 만큼 이들은 ‘국권회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였다. 그러나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즉각적인 국권회복을 추구하는 의병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실력양성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애국계몽운동이었다. 애국계몽운동은, 주로 학회를 결성하고, 실력양성을 위해 학회지를 발간하여 대중을 교육하고, 개화된 대중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¹⁾

1906년 대한자강회가 창립되었으나, 1907년 7월에 고종 퇴위를 반대하는 시위로 통감부에 의해 해체된다. 대한자강회를 이어 대한협회가 창립되던 시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0709)

1) 전재관, 「한말 애국계몽단체 지회의 분포와 구성」, 『승실사학』 10집, 153-154.

기를 전후하여 지역 중심의 학회가 많이 창립되었다. 당시의 학회는 대개 지연(地緣)과 학연(學緣) 중심으로 발기되고 조직되었다. 황해·함경·평안 지역 인사들이 중심이 된 서북학회, 강원도의 관동학회, 경상도의 교남교육회, 경기도와 충청도의 기흥학회 등이 창립되었다. 1908년 1월의 경기도(서울 포함)·충청남북도를 망라한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 1908년 3월의 경상남북도 중심의 교남(嶠南)교육회 등이 그것이고, 서북(西北)학회는 1908년 1월 서우학회와 함경도 중심의 한북(漢北)학회가 통합된 것이다.

‘학보’는 이 시기 계몽운동 단체이자 지식인 그룹인 학회가 만든 학술 잡지로, 발행 시기는 1906~1909년의 4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대개 일본 통감부의 제재 속에 평균 1~2년의 활동 기간 동안 10~20호 정도를 발간했다. 크게 지역기반 학회와 유학생 학회의 양대 계열로 형성된 이 시기 계몽운동 단체는 각기 자신들의 월보에 그들이 구상하는 계몽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3~4년간 존속하고 사라져버린 이 월보들의 주요내용은 서구 근대의 분과 학문들을 축약 번역하여 전하는 것이었다. 이는 근대지식의 베타치기라고 할 만큼 당대 계몽 지식인들의 다급한 근대지식의 수혈의지의 표현이었다. 단기적인 활동 속에서도 이 시기 학회들은 조선의 근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심에 찬 모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²⁾. 이들 학회들이 발간한 학보들은 민족교육에 중점을 두고 구국(救國) 계몽운동에 앞장선 언론지의 역할을 했다. 신지식인들에 의해 19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회의 활동은 표면상 이유로는 단순한 지식의 보급을 위한 계몽운동을 내세웠으나 실제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민력을 향상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이룩하는데 그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었다.³⁾

근대화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 유학생들은 근대에 대해 교육시키자는 목적을 세우고 잡지라는 매체를 활용했다. 『대한자강회월보』 등이 그런 예이다.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보가 들불처럼 번져가던 시기 『호남학보』는 호남

2) 홍인숙, 정출현, 「대한자강회월보」의 운동성과 지향연구-자강회 내부의 이질적 그룹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30집, 355쪽.

3) 김희태, 「한말 호남학회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 1983, 299쪽.

인들의 근대화를 위해 호남출신 인물들이 모여서 만든 교육목적의 잡지라고 할 수 있다. 호남학회는 1907년 7월 서울에서 전라남북도 출신 인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애국계몽단체이다. 57군으로 형성된 전라남북도 지방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1907년 7월 6일에 창립하였다. 이후 헤이그 밀사사건과 고종의 양위, 대한자강회의 해산 등으로 학회 활동을 중단했다가, 1908년 2월에야 활동을 재개하였다. 몇 차례의 총회를 거쳐 1908년 6월에 『호남학보』를 창간하여, 총 9호를 발간한 후 1909년 3월에 폐간되었다.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고, 학문은 교육이 아니면 얻을 수 없다고 믿었고 이러한 교육의 역할을 잡지가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똑같이, 같은 방향과 과정으로, 같은 힘의 크기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근대, 근대성은 근대 프로젝트의 방향에 따라 근대성의 토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근대를 기획하고 실천한 주체들의 성향과 이들 사이의 권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서양의 근대와 다른 근대를 동아시아나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근대나 근대성 논의가 문학 텍스트나 역사적 실증의 지엽적인 내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방향, 권력, 억압의 메커니즘과 욕망의 흐름과 그 지향성, 근대가 작동되고 실천된 사회문화의 장과 더불어 총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문화론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뜻한다.⁴⁾

이에 본고에서는 호남학회의 성립과정, 『호남학보』의 발간에 참여했던 인물들과 그들의 역할, 『호남학보』 발간 목적, 교육의도를 밝힘으로서 근대시기 잡지로서 『호남학보』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호남학보』를 통해서, 이 당시 호남학보를 제작하는데 참여했던 인물들에 대해 분석하고, 잡지발간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생각했던 근대적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4) 이도흠, 「근대성 논의에서 페러다임과 방법론의 혁신문제」, 『국어국문학』153호, 2009, 22쪽

2. 호남학회의 성립과 학보의 발간

2.1 호남학회의 성립 과정

호남학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자강회는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에 대항하여, 이준(李儁), 양한묵(梁漢默) 등이 중심이 되어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의식과 민족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조직한 단체였다. 1906년 4월 창립해서 1907년 8월 강제해산에 이르기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전국에 25개의 지회와 1,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회장 윤치호, 고문에 일본인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 평의원, 간사원을 두었다. 일본인을 고문으로 둔 만큼 일제의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와, 월보를 간행하고, 지회를 설립하였으며, 주권회복, 자주독립의 쟁취를 위해 애국계몽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자강회는 1907년 7월에 고종황제의 퇴위에 반대, 국채보상운동 참여, 이기(李沂)의 을사오적 습격사건 등으로 통감부에 의해 해체되었다.⁵⁾

이기는 대한자강회를 창립할 때 장지연, 윤희정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대한자강회보에 글을 많이 게재했던 인물들은, 장지연, 윤희정, 오가키 다케오, 그리고 이기였다. 이기는 짧은 연재 글 「본국방언」을 10호까지 싣고 있지만 마지막 논설을 실은 9호 발간이후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정리한 듯하다. 이들은 자강회를 창립할 때 그 대의명분에 공감하여 활동을 시작했다가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의 부일적(扶日的) 성향 및 장지연의 원칙론적 방관주의에 차츰 한계를 느끼면서 활동을 접고 스스로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⁶⁾ 이기는 1907년 3월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 나인영이 모집한 단체인 ‘자신회(自新會)’에 들어가 「자신회취지서」를 짓고, 오적을 처단하려

5) 전재관, 「한말 애국계몽단체 지회의 분포와 구성」, 『송실사학』10집, 153쪽

6) 홍인숙, 정출현, 「대한자강회월보」의 운동성과 지향연구-자강회 내부의 이질적 그룹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30집, 374쪽.

다 실패하고 검거된다.

대한자강회가 해산하면서, 대한자강회에서 활동했던 이기(李沂)를 비롯한 호남 인사들이 호남학회를 창립한 것으로 보인다.⁷⁾ 1907년 서울 대동문우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호남학회는 이후, 여러 차례 총회를 거듭하면서, 호남학보가 발간되는 1908년에 와서야 임원진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⁸⁾

직 위	인 명
회장	고정주(高鼎柱)
부회장	유희열(劉禧烈)
총무	강엽(姜擘), 박영철(朴榮喆)
평의원	최준식(崔俊植), 양희원(梁會源), 구본순(具本淳) 김낙균(金洛龜), 박남현(朴南鉉), 소식정(蘇錫政), 김봉선(金鳳善), 윤경중(尹敬重), 박해창(朴海昌) 김경중(金璟中), 정규삼(鄭奎三), 양한묵(梁漢默), 윤주신(尹柱臣), 이석현(李石峴), 윤상오(尹相五) 장명상(張命相), 한남수(韓南洙), 강운섭(姜雲燮)
교육부장	이기(李沂)
재무부장	백인기(白寅基)
서기원	이시우(李時雨), 장달영(鄭達永)
회계원	최우락(崔禹洛), 이채(李採), 장두식(張斗植), 박준필(朴準弼), 조강환(曹康煥), 이봉(李俸), 이우약(李愚若), 윤광보(尹光普), 정응설(鄭應嵩) 심의갑(沈宜甲), 민영직(閔泳直), 이광수(李光秀) 변기찬(邊基纘),
간사원	이근용(李根容), 우성해(禹成海), 이경노(李敬魯) ⁹⁾

7)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대한자강회의 조직구성과 지회설립방안, 교육에 대한 이
론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8) 이현중, 「호남학회에 대하여」, 『진단학보』33권, 진단학회, 1972. 65-66쪽

9) 『호남학보』 1호, 57-58쪽

그러나 춘강 고정주, 다산 박영철, 김경중(金璟中: 인촌 김성수 부친) 등 호남의 유명한 자본가들이 호남학회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들은 학회의 활동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회장인 고정주 등을 비롯하여 유명 자산가들이 낙향하여 신교육활동을 하거나 여타 사업 등에 전념하면서 학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회의 운영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호남학보』는 1908년 6월 25일 발행된 제1호부터 1909년 1월 25일 발행된 제8호까지 매달 25일 발행되었으나 1909년 2월에는 발행되지 않았으며, 3월에는 제9호가 발행되었다. 제9호의 책머리에 “본학보(本學報) 발행이 이제 9호에 이르렀는데 대금(代金) 수합이 영성(零星)하여 계속 발간이 지극히 어려우니 구독하는 회원들은 대금을 속히 보내주기 바란다.”는 광고가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이 당시 학회 운영 및 학보 발간이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월부터 학보는 더 이상 발간되지 못하였다.

2.2 『호남학보』의 발간과 주요인물 성향

근대잡지들은 시작부터 국민 계몽과 국권회복이라는 이념을 강하게 드러냈다. 근대 잡지가 안정적 수익구조나 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잡지발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참여 인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대 잡지는 계몽성과 정치성을 강하게 지니면서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념과 가치를 전파하는 매체였으며, 편집진이 독자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지식과 문화 권력의 장치가 되었다.¹⁰⁾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국권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시기 계몽운동 단체들에는 당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다.

제1회 ‘회록’에 보면, “광무 11년(1907) 7월 6일 하오 2시에 호남학회 발기회를 대동(大東)문우회관에서 개최하니 출석원이 112명이라, 발기인 강엽(姜

10) 서유리, 『잡지 표지로 보는 근대:시대의 얼굴』, 소명출판, 2016, 13쪽

曄)이 회합의 요지를 설명하고, 임시 회장에 윤자선(尹滋善)을 천거하여 회중의 찬성을 얻고, 부회장 강운섭(姜雲燮), 총무 백인기(白寅基), 평의원 김낙구(金洛龜) 윤주신(尹柱臣) 박영철(朴榮喆) 최우락(崔禹洛) 윤경중(尹敬重) 정규삼(鄭奎三)¹¹⁾ 등이 피선되었다. 임원진 가운데 『호남학보』 필진으로 참여했던 인물은 모두 35명이고, 그들이 『호남학보』에 게재한 원고의 수는 아래와 같다.

순위	인명	원고 게재수
1	이기(李沂)	13
2	최동식(崔東植)	9
3	윤주찬(尹柱贊)	5
4	변승기(邊昇基)	5
5	박해창(朴海昌)	3
6	최우락(崔禹洛)	3
7	이채(李採)	3
8	박종완(朴鍾完)	2
9	유흥렬(劉興烈)	2
10	윤주혁(尹柱赫)	2
11	변기찬(邊基贊)	2
12	현채(玄采)	2
13	최준식(崔俊植)	2
14	강엽(姜曄)	2
15	윤주신(尹柱臣)	2
16	심선택(沈璿澤)	1
17	양회원(梁會源)	1
18	오지영(吳知泳)	1
19	변진걸(邊鎭傑)	1
20	윤광보(尹光普)	1
21	박남현(朴南鉉)	1
22	백인기(白寅基)	1
23	박영철(朴榮喆)	1
24	민경호(閔慶鎬)	1
25	이기영(李綺榮)	1
26	이재량(李載亮)	1

11) 『호남학회월보』 1호, 53쪽

27	김영묵(金永默)	1
28	이희직(李熙直)	1
29	임정규(林正奎)	1
30	정응리(鄭應離)	1
31	김병윤(金炳胤)	1
32	김관표(金觀杓)	1
33	이강제(李康濟)	1
34	유희렬(劉禧烈)	1
35	황희성(黃義性)	1

梁啓超(3), 每日申報 照膽(3), 皇城新聞 照膽¹²⁾

총 35명 가운데, 주요 필자로 꼽을 수 있는 인물로는, ‘변기찬(邊基贊, 2), 변승기(邊昇基, 5), 유희열(劉禧烈, 8), 윤주신(尹柱臣, 2), 윤주찬(尹柱贊, 5), 윤주혁(尹柱赫, 2), 이기(李沂 13), 이채(李 保, 3), 최동식(崔東植, 9), 최우락(崔禹洛, 3), 최준식(崔俊植, 2), 현채(玄采, 2)’ 등이 있다. 월보의 발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교육부장 이기(李沂)가, 월보발간의 주관자로서 가장 많은 13건의 기사를 실었다. 『호남학보』는 매호당 60쪽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되었다. 적은 지면에 많은 내용을 담고자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글이 여러 호에 나누어서 게재되는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이기의 글이 『호남학보』를 이끌어갔다고 볼 수 있다.¹³⁾

글을 게재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병윤(金炳胤)은 고종(高宗) 17년(1880) 경진(庚辰), 증광시(增廣試)에 입격하였다. 김병윤처럼 과거를 치러 입격한 인물로는 박해창(朴海昌), 유희열(劉禧烈), 최우락(崔禹洛) 등이 있다. 그리고, 고정주(高鼎柱), 박영철(朴榮喆), 백인기(白寅基), 심선택(沈濬澤) 등은 막강한 집안의 부(富)를 배경으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일제시대에 귀족이 되기도 하고, 더욱 큰 부를 이루기도 했으며, 후에 창씨개명(일본식 성명강요)을 하기도 하였다.

12) 인명은 가나다순, (숫자)는 『호남학보』에 글을 게재한 숫자이다.

13) 정충권, 「근대 계몽기 문학교육의 형성과 흔적:전통지식인이 바라본 근대계몽기의 교육과 문학」, 『문학교육학』39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35쪽

반대로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한 윤주찬(尹柱瓚) 등이 있는가 하면, 동학농민운동가로서 활동하고 후에 천도교 혁신운동의 지도자로 변신한 오지영(吳知泳)도 있다. 이외에 현채(玄采)는 번역활동을 하면서, 『호남학보』에 양계초의 정치사상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¹⁴⁾

호남학회의 인물들의 구성을 보면, 1894년 갑오개혁 이전 한학을 배우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간 이들로 유흥열, 유희열, 최우락, 고정주, 나인영 등이 있으며, 1894년 이후 한학을 배우고 관직에 추천되어 나아간 이들로 이재량, 이기, 윤주찬, 오기호 등이 있다. 그리고 1894년 이후 신학문을 배워 그것을 토대로 관직에 나아가 이들로, 김현승, 김종구, 김인식, 박영철, 백인기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호남학회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이들이었다.¹⁵⁾ 호남학회의 회원으로서 1910년대 관리가 된 이들의 다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서기, 측량기수, 훈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한말부터 1910년대 초 사이에 신식교육을 받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신식교육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중인층이었다.¹⁶⁾ 전체적으로 볼 때 호남학회 회원들의 반일의식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고 여겨진다.¹⁷⁾ 호남학회 일반 회원들의 다수는 당시 한성에 거주하면서 신학문을 배우고 신학문을 배우고 있던 유학생들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중하위직 관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민족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참여한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꼽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한문학을 배웠던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과거를 통해서 입격(入格)한 인물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다산 박영철의 경우는 시문집(詩文集)¹⁸⁾을 발간하고,

14) 인물에 대해서는 박찬승 「한말호남학회연구」와,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을 참조하였다.

15) 박찬승, 「한말호남학회연구」, 『국사관논총』53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61쪽.

16) 위의 논문, 71쪽.

17) 위의 논문, 165쪽.

18) 박영철은 『다산시고(茶山詩稿)』를 남겼다. 박영철은 『호남학보』 「수사규풍」에 한 차례 글을 실는 것 외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문과 일어로 된

근대 잡지에 많은 글을 게재하였다. 오지영의 경우도 많은 서책을 발간할 정도로 한문학 실력이 뛰어났다.¹⁹⁾

구성원들의 이 같은 특성은 잡지를 발간했을 때, 독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남학보』가 채택한 ‘국한문혼용체’는 한문학을 공부한 유학자 혹은 한문학을 공부하였지만 신학문에 호의적이었던 신지식인들을 주요독자로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인지, 『호남학보』에서는 한문/한자를 배격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此又所以學會之不得不設이오 而月報之不得不作也라. 但其所述이 既以新學爲說호니 則人皆創見이라 必生異議나 然吾輩도 亦愛名者也라 豈敢以不經之論으로 冒陳於諸公호야 自取謗毀哉아. 其實은 與舊學으로 文辭雖殊나 而義理則同호야 有非截然爲兩物者也라. 古人이 云狂夫之言도 聖人이 擇焉이라 호니 吾輩는 縱不免狂夫나 而諸公은 豈不欲爲聖人耶아 幸於此에 一擇之再擇之호야 存其善而去其不善이면 是區區之所望也로라.²⁰⁾

위의 글은 교육부장인 이기가 지은 <호남학회월보 발간서>이다. 학회를 설립하고 월보를 발간하는 일은 시세(時勢)에 따라 부득이해서 한 일이라고 하였다. 학보를 발간함에 저술한 바를 ‘신학(新學)’이라고 하지만, 실은 ‘구학(舊學)’과 문자만 다를 뿐 의리(義理)는 똑같다. 그래서 신학과 구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호남학보』에 쓰인 다른 글에서도 발견된다. 「일부벽과론(一斧劈破論)」, 「학비학문(學非學文)」, 「대학신민해(大學新民解, 6호)」 등을 통해, 구학문에서 중요시하는 내용들은 국문으로도 배

다섯 권의 저서를 남길 만큼 왕성한 저작활동을 하였다.

19) 『호남학보』 발간에 참여한 인물들의 경우, 한문학에 대한 소양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큰 학맥을 형성하였던 간재 전우의 학맥을 정리한 『화도연원록』에 이름이 실린 인물은 朴海昌, 崔俊植 단 두 명에 불과하여, 호남학회에 참여한 인물들은 대부분 신학문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 이기, 『호남학보』1호, 「호남학회월보발간서」

울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일부벽파론」에서, 노사 기정진, 면암 최익현의 학문이 ‘매우 아름다우나, 대학교육 이상에서나 가능하고, 중학 이하의 보통교육에서는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구학문과 신학문의 배움의 순서를 나누기도 하였다.²¹⁾ 이기 외에도, 「신구동의(新舊同義(2호, 변승기))」, 「의독논어(宜讀論語, 7호, 최우락)」, 역시 신구(新舊) 학문은 그 의리(義理)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신학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호남학회에 회원으로 참석한 인물들에는 전현직 관료층이 많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신학문보다는 구학문을 공부하고, 1894년 이전에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나아갔거나, 아니면 1894년 이후 추천을 통하여 관직에 등용된 이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핵심적인 주도회원들은 당시 ‘대한 자강회’나 ‘대한협회’에도 참여하였다. 따라서 호남학회의 주도세력은 당시 다른 학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고정주, 이재량, 박해창 등과 같이 비교적 보수적 인사들이 간부에 추대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이렇다 할 구실을 하지 않았다. 또 호남학회의 회원들 가운데에는 상당한 대지주층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학회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또 호남지방의 재지주층으로부터도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호남학회의 회원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인물로 김경중(金璟中), 고정주 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호남학회에 기부금을 약속만 하고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지주(地主)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호남학회가 재지주들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²²⁾

21) 이기, 「일부벽파론」, 『호남학보』1-3호,

吾觀諸公學問이 舉皆蘆沙奇先生, 勉菴崔先生, 淵齋宋先生之所傳授者라, 則固善且美焉이나 然此可行於高等(大學以上)이오 不可行於普通(中學以下)矣라, 其如時之不合用何哉오

22) 박찬승, 「한말 호남학회 연구」, 『국사관논총』 53권, 국사편찬위원회, 1994, 163쪽.

3. 『호남학보』에 나타난 근대성

호남학회 회원들 역시 신학문의 수용과 함께 가장 강조했던 것은 신교육의 실시였다. 근대계몽기 계몽운동 단체들은 각기 자신들의 월보에 그들이 구상하는 계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동식(崔東植)은 「本報讀法」에서 아래와 같이 학보발간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此월에 讀此月之報호야 乃能警醒焉호고 來月의 讀來月之報호야 乃能覺悟焉
호면 必能揣摩現世界之新文明호며 吸取現世界之新空氣호야 可做具體完全之
人格호리니 本會之目的과 月報之旨義가 固不外乎是也라.²³⁾

최동식은 학보(學報)를 읽음으로서, 낡은 정신을 깨치고 각성하여 현세계의 신문명을 이해하며, 신공기를 흡입하여서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학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에 학보를 읽을 대상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자는 ‘혁구분신(革舊賁新)의 방략규모(方略規模)’를 알 수 있으며, 애국하는 자는 ‘국제민생(國計民生)의 사상경륜(思想經綸)’을 알 수 있다고 천명하는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학보를 읽으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설명하였다.

학회를 발간하는 이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교육이었다.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문명국이 된 것은 교육에 힘쓴 덕분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1897년 6월 22일자 『독립신문』의 사설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주년 기념식을 소개하면서, 영국에는 “무식한 자가 가장 희귀한 존재”라고 주장할 정도로 교육이 영국의 부귀영화의 배경임을 강조하였다.²⁴⁾ 『호남학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호남학보』의 내용은 크게 “교육변론(教育辨論), 각학요령(各學要領), 수사규풍(隨事規諷), 명인언행(名人言行), 본회기사(本會記事), 회원명씨(會員名

23) 최동식, <本報讀法>, 『호남학보』1호, 3-5쪽.

24)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푸른 역사, 2003. 82쪽

氏)”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변론에서는 학회령, 사립학교령, 국한문경중론, 의무교육, 구습타파, 정신교육, 학계 소식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각학요령에서는 신학문으로 분류되는 가정학, 국가학, 정치학, 법학, 농학, 종식학(種植學), 삼립법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학문분류체계는 구습을 타파하고, 신학문을 수입하여 국민교화를 실시한다는 의식 등이 구체적화 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사규풍은 그때그때 사회에서 일어난 시사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학보 자체내에 독자적인 취재체계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한매일 신보의 논설을 신기도 하고, 황성신문의 내용을 신기도 하였다.

의무 교육, 여학교/여학생 교육의 필요성, 측량 응모, 식산교육, 학부령, 사립학교 설립 인가 청원서식, 학부 차관 연설문 등을 소개하였다. 측량응모, 학부령, 사립학교 설립인가 청원 서식 등은 참여회원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회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측량과 관련된 분야의 관리로 나갔으며, 고정주, 이기 등은 고향에서 사립학교를 개설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명인언행은 한국사의 명인을 소개하여 국민들의 자부심을 길러 주기 위해 구성한 부분이다. 을지문덕, 양만춘, 김유신, 강감찬, 서희, 성충, 김후직, 강수, 설충, 김생 등 한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고, 서양사에서 다룬 인물들도 가끔 소개되기도 한다.

이 밖에 본회기사에서는 회의록·세칙·연조록(捐助錄)·회계 보고를 신고, 회원명씨에서는 신입회원과 지회 임원록을 담고 있다.

6개의 부문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변론(教育辨論)과 각학요령(各學要領)이다. 아래 표는 『호남학보』 1호-9호까지 나온 교육변론과 각학요령의 목차를 정리한 것이다.

호	제목	필자	비고
1호	一斧劈破	李沂	

	立教本旨	澗木堂 邊基績	
	晨鐘普警	崔東植	
	梁氏學說(양계초 학설 소개)	李沂	
	各學要領(家政學, 國家學)	李沂	
2호	一斧劈破(續)	李沂	
	與呂荷亭書(附)	黃義性	
	國漢文輕重論(附)	每日申報	
	新舊同義	邊昇基	
3호	晨鐘普警(續)	崔東植	
	各學要領(家政學, 國家學, 政治學說)	李沂	
	一斧劈破(續)	李沂	
	學界漫說	劉禧烈	
4호	晨鐘普警(續)	崔東植	
	革去舊習	邊昇基	
	各學要領(家政學, 國家學, 政治學說)	李沂	
	鄉校得失	李沂	
	師校緩急	李沂	
	學界漫說(續)	劉禧烈	
	晨鐘普警(續)	崔東植	
5호	革去舊習(續)	邊昇基	
	今乃省吾	梁會源	
	青年同胞	梅塢 尹柱赫	
	各學要領(家政學, 國家學, 政治學說, 法學說)	李沂	政治學: 清 梁啓超
6호	學令騰告	李沂	
	學會令		
	私立學校令		
6호	各學要領(家政學, 國家學, 政治學, 法學) 國家之歷史: 玄采 譯述		
	大學新民解	李沂	
	楊墨辯		
	學界漫說	劉禧烈	
	晨鐘普警	崔東植	
	革去舊習	邊昇基	
	各學要領(家政學, 國家學, 政治學, 法學, 農學說,		農學: 李沂

	農學初階)		
7호	宜讀論語	崔禹洛	
	義務教育	姜曄	
	學非學文	李沂	
	學界漫說(續)	劉禧烈	
	晨鐘普警(續)	崔東植	
	精神教育	尹柱臣	
	各學要領(家政學, 國家學, 政治學, 法學, 農學, 種植學說, 森林法)		
8호	教育宗旨	李沂	
	學界漫說(續)	劉禧烈	
	晨鐘普警	崔東植	
	各學要領(家政學, 國家學, 政治學, 法學, 農學, 種植學說, 森林法) 東洋拓植株式會社法說明書		
9호	各種學이 不如農學	尹柱瓚	
	晨鐘普警(續)	崔東植	
	學界漫說(續)	劉禧烈	
	各學要領(家政學, 國家學, 法學, 農學, 種植學, 森林法) 東洋拓植株式會社法說明書		

위의 표에 제시된 목차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같은 제목이 연속으로 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신고자 한 사람의 글이 긴 경우, 나누어 실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학은 1호에서 9호까지 꾸준히 실려 있다. 그리고 청나라 양계초의 정치론을 소개하는 정치학설은 2호부터 등장한다. 이후 꾸준히 근대학문이라 할 수 있는 법학설(4호-9호), 농학(6호-9호), 삼림법(7호-9호), 종식학(種植學, 7호-9호) 등을 소개하였다.

근대잡지는 독자를 대상으로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이념과 가치를 전파하는 매체로서, 그 시작부터 계몽적 의도와 이념적 목적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이기(李沂), 변승기(邊昇基) 등은 학보 초기의 「신구동의(新舊同義, 2호)」에서는 “신학문은 구학문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논조를 펼쳤다. 그러나 뒤이어 게재된 글 「허거구습(3-6)」에서는 구학문을 버리고 신학문을 배우자는 취지의 글을 썼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관이 크게 바뀐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의 교육관은 개인과 나라가 나뉠 수 없었다. 수신(修身)과 평천하(平天下)는 사대부에게 있어서 둘이 아닌 하나의 개념이다. 중세교육관에서 모든 교육의 시작은 수신(修身)이지만, 근대의 교육관에는 수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즉 수신이라는 개인 교육에서, 일반인을 위한 대중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교육의 기본개념이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 근대 교육 과목의 소개와 학생들의 성향

근대 초기에 등장하는 잡지들은 각종 근대 지식을 앞 다투어 소개하였다. 정치학, 경제학, 한국사, 세계사, 교육학과 같은 인문학적 지식과 함께, 지리학(한국지리, 세계지리), 물리학, 생물학, 광물학, 농학, 화학, 수학, 수학 등과 같은 자연과학적 지식도 보급하고 있다. 또한 교양 혹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생학, 가정학 등도 주요하게 보급해야 할 지식으로 등장하였다.

교육을 통해서 주권을 회복하자라는 의도로 창립한 호남학회가 『호남학보』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분야 역시 ‘교육운동’이다. 호남학회에서 주장하는 교육의 대상은 위로는 정치가.사대부로부터 밑으로는 여성, 농민까지 이른다. 교육의 범위도 정치학, 법학, 국가론 등 국가경영과 관련된 과목 외에도 가정학, 농학, 삼림법 등 실용학문의 내용도 담고 있다.

『호남학보』에서는, 구학문과 신학문은 문자의 표현형식이 한문이나 국문 이냐만 다를 뿐 의리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논조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호남학보』 2호에서 이러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²⁵⁾. 하지만 구학문은 중등이하의 교육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초등교육에서는 서양식 학문체계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 이러한 주장이 ‘각학요령’으로 등장하였다.

25) 『호남학보』 2호 : 「與呂荷亭書(附)」, 「國漢文輕重論(附)」, 「新舊同義」
『호남학보』 7호 : 「學非學文」

26) 이기, 「一斧劈破」

夫學術之要, 必須看時勢之合用不合用, 故黃老之教雖未善矣, 而漢人用之, 足以致文景之盛, 程朱之道雖盡美矣, 而宋人用之, 不足以救崖山之敗者, 時與不時故耳

호	각학요령	저자	비고
1	家政學, 國家學	李沂	
2	家政學, 國家學, 政治學說	李沂	
3	家政學, 國家學, 政治學說	李沂	
4	家政學, 國家學, 政治學說, 法學說	李沂	政治學: 淸 梁啓超
5	家政學, 國家學, 政治學, 法學		國家之歷史: 玄采 譯述
6	家政學, 國家學, 政治學, 法學, 農學說, 農學初階		農學: 李沂
7	家政學, 國家學, 政治學, 法學, 農學, 種植學說, 森林法		種植學說: 尹柱瓚
8	家政學, 國家學, 政治學, 法學, 農學, 種植學說, 森林法		東洋拓植株式會社法 說明書
9	家政學, 國家學, 法學, 農學, 種植學, 森林法		東洋拓植株式會社法 說明書

각학요령에서 제시한 분야는 위로는 국가학, 정치학, 법학 등에서부터 아래로는 가정학, 농학, 삼림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이 넓고 다양하다. 국가학과 정치학에서는 청나라 양계초의 학설을 소개하였다.²⁷⁾ 이기(李沂)는 『호남학보』 1호의 국가학에서부터 7호 농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글들을 게재하였다.²⁸⁾ 농학은 농학, 종식학, 삼림법 등으로 세분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온상(溫床)등을 이용하여 싹을 틔우는 농법을 도표로 제시(6호)하기도 하고, 조림(造林)예정도를 제시하여 삼림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蓋邦은 民으로써 本을 삼고 食으로써 天을 삼느니 邦이 民이 아니면 何依호야 立호며 民이 食이 아니면 何賴호야 生호리오.

27) 『호남학보』 1호, <양씨학설>

梁啓超先生은 淸之大儒也라. 其 學術言論이 精邃淵博호야 足以爲一世標準이라. 而今其文集中에 有教育政策私議一篇호니 蓋參考近世諸國所通行者호야 而立其區界耳리 此可以供諸公一覽이라.

28)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기는 정약용과 유형원을 잇는 중농실학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중략>

昨年 夏間の 自内部로 警視一人(日人)을 元山平壤 等地로 派送하여 地方 情形을 視察케 하였는데 該 警視가 大都會學校에 學徒 數百人을 會集하고 楛板上에 政治 法律 經濟와 農工商 各料를 書고 學徒의 願學할 바를 問히던 學徒 中 百分의 九十九는 皆 政法經濟科로 歸하고 農工商實業의 對하여는 百分一에 不過거늘 警視가 剴切曉諭하여 曰 韓國으로 言하면 二千萬人衆이 教育을 受히드라도 政治 法律 經濟에만 從事하고 農工商實業을 泛忽하면 何로 由하여 衣食住를 히리오 하였다.²⁹⁾

근대계몽기 대부분의 학회에서 소개하는 근대교육은 각종 근대지식의 소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근대지식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은 근대 초기 잡지가 대중교육에 상당한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³⁰⁾ 윤주찬은 『호남학보』9호에 「각종학(各種學)이 불여농학(不如農學)」이라는 글을 실었다. 윤주찬이 이 글을 쓴 이유는 학보에서 소개하는 근대학문의 성향과 학생들의 학문 선택에서 드러난 의견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근대지식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정치학, 경제학과 같은 통치와 관련된 학문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 교육학, 한국사, 세계사, 물리학, 생물학, 광물학, 농학, 화학, 수학, 위생학 등 실용적인 학문 내용들이 많았다. 실제 이기나 윤주찬 등은 학생들이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기를 바랐지만, 학생들은 농공상(農工商)에 종사하기보다는 정법경학(正法經學)을 통해서 관리로 나아가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윤주찬은 농공상 등 실업을 홀대하면 의식주를 자족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농학은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역설하였다.

29) 윤주찬, 「각종학이 불여농학」, 『호남학보』 9호, 1-4쪽.

30) 한기형 외, 『근대잡지와 근대문학형성의 제도적 연관-1910년대 최남선과 竹內錄之助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4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40-41쪽.

3.2 사대부교육에서 가정교육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몽기의 다양한 출판 언론운동에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터져 나왔다. 여성을 주요 독자로 설정한 『제국신문』이, 최초의 일간지가 등장한 1898년에 순한글로 발행되었으며 각종 잡지의 출판이 활성화된 1906년에 『가정잡지(家庭雜誌)』가 출간된 것을 보면, 교육(教育)·식산(殖産)·자강(自強) 등 계몽기를 대표할 수 있는 이념 중에 여자교육 내지 가정(家庭)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³¹⁾ 호남학회에서도 가정학은 1호부터 폐간되는 9호까지 잡지의 가장 첫 부분에 실려 있다.

古語에 曰 本이亂하고 末을 治하는 者] 無하고 又曰 君子는 本을 務한다
호았스니 此는 本이 立하면 道가 生함이다. 大凡 家者는 國의 本이니 故로 國
을 治하려면 其 家를 齊하고 兼히 國人으로 治야금 其 家를 齊케 할
지라. 是以로 一國의 治平은 반드시 家를 齊함으로 始야야 家가 齊한 後에 府
郡이 安하고 府郡이 安한 後에 一國이 治하느니 大概 一國의 德教는 一家의
德教에 源하고 一國의 財用은 一家의 經濟에 根하고 國民의 康寧은 一家의 衛
生에 基하고 其他 百般事物의 善否와 精麤가 또한 一人一家의 勤惰와 巧拙에
源치 아님이 업느니 故로 人人이 能히 其 家庭을 理할지더 비록 國의 不治를
望하느 得지 못할지라. 孟子] ㄹ스디 國의 本이 家에 在하다 호섯스니 此
는 家政의 得失이 一國의 興亡盛衰에 攸關함을 表彰하심이다. 然호 則 國을
愛하는 者] 엇지 齊家의 道에 用心치 아님이 可호리오.³²⁾

위에 제시된 내용은 『대학(大學)』의 주요항목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그 대상이 사대부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과거 여성교육은 특별히 취급되지 않았다. 어찌너머로 배웠 다든가, 아니면 가정교육이라는 말로 치부되었다. 『호남학보』에서는 여성을

31) 임상석, 「근대계몽기 가정학의 변역과 수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권, 2013, 152쪽

32) 이기, 「가정학설」, <가정학총론> 제1, 『호남학보』 1권, 28-29쪽

당당히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가르치는 내용도 매우 세세하였다. 가정학에서는 태아교육(胎育)부터 시작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 법(哺育), 유아(幼兒)를 교육하는 방법(保育)(학보 1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유아의 의식주(衣食住), 각종질병, 유아놀이, 소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가정은 국가의 근본임으로, 국가의 안녕은 가정의 안녕에 의하고, 국민의 강녕은 가정의 위생에 근본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사랑함에 재가(齋家)는 마땅히 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가정학이 있다고 여겼다.

잡지 편집자들은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근대적 주체 만들기를 목표로 잡지를 발행했다. 상업적 목적의 잡지라 해도 잡지의 구매를 위해 적합한 독자 주체를 상상하여 소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³³⁾ 지식을 대중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문장을 가급적 쉽게 쓰는 것이다. 근대 지식의 보급과 함께 민족적 자부심을 보급하고, 민족 위기라는 시대상황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국가학, 법학 등 다른 부분들이 모두 국한문혼용으로 작성된 것과 달리, 이기는 한자를 익힌 여성들만 아니라 한자를 익히지 못한 여성들도 모두 학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학 부분은 국한문혼용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바로 뒤에 다시 국문으로 풀이하였다.

兒童을 教育함은 마치 園丁의 花草와 如하야 培養이 宜를 得흔 則 風姿를 具保하고 否흔 則 珍草奇花라도 또흔 荒敗에 歸하야 橫枝亂葉의 長蒿이 天然 佳麗를 損함은 初에 善히 栽植치 못함이오. 兒童을 教育함도 此 理와 稍異 함이 無하니 是故로 兒童이 長成하야 羸弱愚鈍한 者는 胎育을 不謹함과 幼時에 失教로 由하느니 此는 不可不 初에 愼할 것이오 또 強健하고 賢能한 後에야 得할지라.

적당케 <34> 하면 변번치 못한 화초라도 또한 금병에 치화보담 화려할지오 배양을 적당히 하지 못할지면 비록 향기 만흔 난초라도 말나서 이울지니라. 사람도 또한 이와 같하야 자식을 나움에 약하고 둔함은 그 근원이 티중에서 싱기며 또한 어릴 썩 위생에 힘쓰지 아니함이니 엇지 일평생에 한이 되지 아

33) 서유리, 『잡지 표지로 보는 근대:시대의 얼굴』, 소명출판, 2016, 15쪽

니 흐리오. 만일 건강흔 아해를 낫코져 흘진디 반다시 강건하고 어진 어머니를 구홀지라. 이럼으로 세상의 영웅호걸이라도 어렸슬 때에 건강하고 어진 모친이 보호치 아니흐얏스면 엇지 큰공을 세웁스리오.³⁴⁾

호남학회에서 가정학은 여성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가정학」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같은 내용을 국한문으로 작성하고, 바로 뒷부분에 순수 한글로 다시 작성하였다.

가정이 곧 나라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집안의 여성들이 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여성을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한 점은 중세와 다르지만, 여성이 하는 일을 집안에서의 일로 한정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주체로 설정한 점은 중세의 교육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잡지의 장기연재는 교과로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당대의 주요 현안인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가정과 여자교육이 주요했던 것을 실증하는 사례이다. 이기(李沂)는 「가정학설」을 “집안의 부인들에 반드시 읽히고, 국문을 읽지 못하는 이는 가정(家長)이 연설하여 듣도록 하라”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3.3. 의무교육의 도입과 학교 설립

근대성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이며, 여기서 새로움이란 ‘자신들의 시대가 지나간 시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리고 더 나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근대성은 따라서 질적인 초월을 포함하는 역사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⁵⁾ 의무교육은 모든 사람이 학교라는 공간에 모여서 보통의 지식을 향유하여 이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였다.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는 애국계몽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다. 『호남학보』역시 의무교육에 관한 의론을 많이 제시하였다.

34) 「가정학설」, 『호남학보』 1호, 33-34쪽,

35)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푸른역사, 2003, 28쪽

학교(學校)는 도리(道理)를 강구(講究)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숙(私塾)을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아이들에게 학교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서로 뜻을 통하고 교제(交際)를 익히고 또 그 취향(趣向)을 같이하고 지식(知識)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보통이라 하니, 보통 두 글자에 함의된 뜻을 상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자제들이 장차 공허한 땅이나, 사막의 들판에 나아가게 된다면, 가정인, 사회인, 국가인이 되고자 하여도 이를 수 없을 것이니, 학교를 버리고 어디로 간다 말인가.³⁶⁾

학교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로는 현인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면,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고급의 학문을 다 익혔다고 하여도, 기껏해야 외운 지식을 시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교 교육은 단순히 학문을 익히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뜻이 통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교제를 하고, 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회인, 국가인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에 보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변기찬(邊基纘)의 「입교본지(立教本旨)」, 강염(姜暉)의 「의무교육(義務教育)」, 이기(李沂)의 「교육종지(教育宗旨)」 등에서 반복되어 나타났다.

4. 결론

근대계몽기 ‘월보’는 이 시기 계몽운동 단체이자 지식인 그룹인 학회가 만든 학술 잡지이다. 1906~190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간되었으며, 평균 1~2년의 활동 기간 동안 10~20호 정도를 발간했다. 국권 상실이 임박해오던

36) 學校 卽其講究此道此理處也, 故自高等·中學以下不許在私塾, 而必使入校, 所以通其志意 習其交際, 齊其趨向 換其知識, 而謂之普通, 普通二字涵畜之意, 概可想見矣, 今諸公有子有弟, 將眞諸蓬藿之地 沙漠之野, 而不欲爲家庭人·社會人·國家人, 則已不然, 捨學校何往耶, 『호남학보』

시기, 3~4년 정도의 짧은 기간 존속하고 이내 사라져버린 월보들의 주요내용은 서구 근대의 분과 학문들을 축약 번역하여 전하는 것이었다. 단기적인 활동 속에서도 이 시기 학회들은 조선의 근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들은 월보를 통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전시 대와는 다른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호남학회에서 발간한 『호남학보』 역시 이러한 근대계몽기 지식인들의 절박함이 묻어있다.

호남학회는 1907년 창립회의를 하고, 1908년에 와서야 임원진의 체제를 갖추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회비의 수납이 순조롭지 못하고, 자본가들의 지원도 영성(零星)하였으며, 1909년 3월 9호 발간으로 학회 활동은 끝이 났다.

호남학회에 참여하여 주로 활동했던 인물들은 갑오개혁 이전 한학을 배워 관직에 나아갔거나, 신학문을 배워 관직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군서기, 측량기수, 훈도 등으로 활동했으며, 신식교육을 받았다.

『호남학보』에서는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였기에, 한문학을 공부한 유학자 혹은 한문학을 공부하였으나 신학문에 호의적인 지식인들을 독자층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주간이었던 이기(李沂)는 구학과 신학은 문자만 다를 뿐 그 의리는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구학문과 신학문의 친연성을 주장하였지만, 실제 『호남학보』에서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근대지식과 관련된 신학문이었다. 『호남학보』의 ‘교육변론’, ‘각학요령’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학, 정치학, 법학처럼 정치와 관련된 학문에서부터 농학, 종식학, 삼림법 등 실용적인 학문과, ‘가정학’처럼 새로운 신식학문도 소개하고 있다. 호남학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가정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매 호마다 ‘가정학’란을 마련하여 태아교육, 자녀교육, 유아놀이, 소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다만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만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여성 교육의 한계를 드러냈다.

호남학회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보통교육, 의무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기(李沂) 등은 구학문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등교육과정에 적용해야 하고, 초등교육에서는 서양식 학문체계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등교육과정을 설립하여 서로 뜻이 통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교제를 하고 지식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고정주, 김경중 등은 실제 학교를 세워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참 고 문 헌

1. 자료

『화도연원록』

한국학문헌연구소, 『호남학보』 1-9호. 아세아문화사,

2. 논저

구자혁, 「대한 자강회와 교육론」, 『사회과교육』(14), 1981, 52-65쪽.

김기주, 「구한말 제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김진균, 「근대계몽기 해학이기의 한문인식」, 『반교어문연구』32집, 2012. 259-286쪽

김희태, 「한말 호남학회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 1983.

박관규, 손성준, 신상필, 홍인숙, 『대한자강회월보』 편역집 1-3, 소명출판, 2015.

박종혁, 『해학 이기의 사상과 문학』, 아세아문화사, 1995.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푸른역사, 2003.

박찬승, 「한말 호남학회 연구」, 『국사관 논총』 53집, 42-95쪽.

서유리, 『잡지표지로 보는 근대:시대의 얼굴』, 소명출판, 2016.

원재연, 「근대이행기 호남유림의 시무론과 동학인식」, 『조선시대 사학보』 74집, 2015, 335-360쪽.

이도흙, 「근대성 논의에서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혁신문제」, 『국어국문학』 153호, 국어국문학회, 2009. 253-286쪽.

이현중, 「호남학회에 대하여」, 『진단학보』33집, 진단학회, 1972.6. 59-79쪽

임상석, 「근대계몽기 가정학의 번역과 수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7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13, 151-171쪽

전재관, 「한말 애국계몽단체 지회의 분포와 구성」, 『숭실사학』10집, 1997, 153-193쪽

정충권, 「근대 계몽기 문학교육의 형성과 흔적:전통지식인이 바라본 근대계
몽기의 교육과 문학」, 『문학교육학』39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33-59.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4.

홍인숙, 정출현 「대한자강회월보」의 운동성과 지향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0집, 2010, 353-380쪽

한기형, 정환국, 정선태, 박현호, 이경훈, 김월희, 류준필, 『근대잡지와 근대문
학형성의 제도적 연관-1910년대 최남선과 竹内録之助의 활동을 중
심으로, 『대동문화연구』4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Abstracts】

A study about the features of Journal of the Honam Hakhoe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Jeong, H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odern features of Journal of the Honam Hakhoe(HonamHakbo)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In Gyeonggi(in the age of enlightenment in Korea), the HonamHakbo is striving to supply a knowledge that flow in the western's a diversity of the studies. Especially, they interested in household art, so they strived for women's education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HonamHakbo was interested in general education, compulsory education. Yi-Ki claimed that the primary education program is for everyone. They thought that a school was necessary to establish an elementary education program and to get together and exchange knowledge among students of mutual understanding.

Key Words : the Journal of the Honam Hakhoe, Honam Hakhoe, DaihanJaganghoe, Yi-Ki(이기) general education, compulsory education.

이 논문은 2019년 06월 2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